

장백산천지

제 236 호

2014 년 8 월 14 일

목요일

저우융강 조사당해, 박해 원흉 반드시 큰 보응 받을 것

[밍후이왕] 2014년 7월 29일, 저우융강이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됐다. 대륙 민중들은 한결같이 환호하면서 명절을 쇠는 듯 하다. 보시라이, 왕리쥘, 전 '610'(중공의 파룬궁을 박해하는 전문조직) 두목 리동성, 쑤룽, 쉬차이허우 등이 잇달아 낙마한 뒤를 이어, 15년 동안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 중 한 자인 저우융강을 조사한다고 선포한 것은 박해 원흉인 장(쩌민), 뤼(간), 류(칭), 쩡(칭훙), 리(란칭) 등 흉악범들에 대한 큰 보응이 시작됐음을 알려주고 있다.

생체 장기적출 주요 관여 '이 지구 상에서 유례없는 악행' 제2

저우융강이 중앙정법위원회를 주관한 10년이 넘는 동안, 최대 죄악은 파룬궁을 박해하고 파룬궁수련생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한 것이다. '파룬궁박해 추적조사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중공이 파룬궁수련생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한 녹음 증거물에서 리창춘은 직접 "저우융강이 이 일(파룬궁수련생 생체 장기적출)을 구체적으로 관할한다"고 말했다.

파룬궁수련생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한 것은 장쩌민, 저우융강 등 원흉이 국가기구를 이용해 통일적으로 전국 범위에서 파룬궁 수련생을 겨냥한 소멸성적인 대 학살이며, 중공 정부의 지지와 보호 하에서 사법계통과 군대, 무장경찰, 지방 등 의료기구가 연합해서 감행한 체계적인 범죄다.

장기적으로 정법위원회와 파룬궁 박해를 주관한 저우융강은 바로 이 반인류 최악의 주모자이자 원흉이다.

저우융강의 핵심 죄악은 파룬궁 박해

1999년 집권자 어릿광대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한 후, 뤼간, 저우융강, 쩡칭훙, 리란칭 등 흉악범은 그의 뒤를 바짝 따라 국가 법률을



무시하고 국가 헌법, 국가 사법 체계, 국가 입법 절차를 초월한 전체 국가 정권우에 군림한 전문 파룬궁을 박해하는 특수 범죄기구인 '중공중앙 파룬궁문제 처리 영도소조'와 '610 사무실'을 설립했다.

그들은 장악한 권력으로 중공중앙 정법위원회, 공안기구를 통치했고 나아가 전 국가의 공검법(공안, 검찰, 사법) 계통, 선전기구, 언론매체를 조종했다.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엄밀하고 독립적으로 운행하는 범죄 체계를 형성하여 장쩌민 범죄 집단이 함부로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고 살해하는 사악한 세력범위로 되었다.

박해가 가장 심했을 때에는 국민총생산의 1/4에 달하는 자금을 파룬궁 탄압에 소모했다.

장쩌민의 파룬궁에 대한 "때려죽여도 추궁하지 않으며, 때려죽이면 자살로 치고 신분(身源)을 밝히지 않고 직접 태우라",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적으로 파탄 시키며, 신체적으로 소멸시키라", "파룬궁에 대해서는 법률을 말하지 않는다" 등 '집단 학살' 정책을 실시함에 뤼간, 저우융강, 쩡칭훙, 리란칭이 주도적 작용을 했다.

수백만 파룬궁수련생이 생명을 잃고, 셀 수 없는 행복한 가정이 파괴되었고, 무수한 사람들이 흑형과 학대로 부상을 입고, 불구로 되었으며, 억에 달하는 무고한 민중과 그 가족이 전례 없는 재앙을 당했다.

'저우융강을 사법처리하라' 전 세계에서 정의의 물결이 일다

박해 두목 장쩌민이 전 세계 10여 개 나라에서 기소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2001년 이후부터 저우융강은 해외 10여 개 나라에서 파룬궁 박해로 '고문죄', '반인류죄', '집단학사죄'로 법정에서 기소됐다. 장쩌민, 쩡칭훙, 뤼간 등 원흉의 큰 보응도 이제 곧 다가오고 있다. ◇



밍◎후이◎단◎신

▲2014년 6월 25일 밤, 호주 시드니 블랙타운 시장 로빈슨(罗宾逊)씨는 시의회 전체 회의 참가자들을 향해 파룬따파 천국 악단은 매년 한 번씩 열리는 블랙타운 시 문화축제 2014년 대 행진에서 일등상을 수상했다고 선포하였다. 이는 파룬궁 단체가 7년간 연속 시드니 대 행진에서 일등상을 받은 것이었다. 위의 사진은 시장 로빈슨씨와 파룬궁 수련생 대표 John Zhuo이다.

▲중공 대만사무실 주임 장즈쥘(张志军)이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방문단을 거느리고 대만을 방문한 기간 파룬궁 수련생들은 평화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박해를 규탄하고 이 한 차례 인류역사에서 신앙과 인권에 대한 가장 잔인한 박해를 당장 결속할 것을 호소했다.

▲대륙 관광객이 유럽 관광지 탈당 중심에 와서 중공 당, 탄, 대에서 탈퇴할 것을 신청하는 인원수가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



장숙현(张淑贤)이 도문 경찰에 납치되어 하루사이에 비참하게 사망

[밍후이왕 길림성 보도] 2014년 8월 7일, 길림성 도문시 파룬궁수련생 장숙현이 도문시 국보대대 경찰에 납치되어 하루사이에 구타받아 비참하게 사망했다. 가족에서 시신의 흉부로부터 아래 허벅지까지 전부 검푸르게 멍든 상처를 보았다.

길림성 도문시 파룬궁수련생 장숙현녀사는 53세이며 길림성 도문시 곡수(曲水) 채대의 사람이다. 2014년 8월 7일 오후 2시 좌우에 5선 공공배스를 타고 도문으로 가던 도중에 실종됐다.

당시 가족에서도 도대체 어느 단위에서, 어떤 사람이, 어디에 납치되었는지 알수 없었다, 소식에 의하면 장숙현은 도문시 국보대대 경찰에 납치되어 도문시 공안국 국보대대로 끌려갔다.

2014년 8월 8일 오후 2시, 도문시 월궁(月宮)파출소 경찰이 차를 타고 장숙현의 집에 찾아와 장숙현의 남편에게 월궁 파출소에 오라는 통지를 했다. 그리고는 또 장숙현의 남편을 도문시 공안국으로 데리고 가서는 “령도를 기다리라”고 했다.

한 령도가 와서 장숙현의 남편에게 “시병원으로 가자,”고 하였다. 당시 그 사람은 장숙현이 심장병이 도발해서 시병원에서 구급 치료를 한다고 속였다.(장숙현의 남편은 장숙현은 근본상 심장병이 없다고 말하였다.) 시병원에 와서 장숙현의 남편은 장숙현이 병침대에 누워 닝결병을(点滴瓶) 걸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신체는 이미 차갑고, 이미 생명의 기상(迹象)이 없었다. 장숙현의 흉부로부터 아래 허벅지까지 전부 검푸르게 멍

든 상처를 확실하게 보아낼수 있고 가짜 이빨도 때려 없어 졌는데 구타로 사망한 것이 분명했다.

장숙현의 남편은 하나의 아주 건강하던 사람이 24시간도 안되는 사이에 경찰들한테 맞아죽은 안해를 보고 크나큰 진동과 비통을 받았다. 장숙현의 남편이 가족들한테 통지하자 일부분 친척들이 와서 공안국에 찾아가 시비를 가르려 하자 도문시 공안국에서는 사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다.

장숙현의 박해받아 사망한 정황을 료해 하시는 분들은 상세한 진상을 제공해주시기를 희망한다. 살인흉수는 끝까지 추적해 낼 것이다.

길림성 연길시 80여 세 노인 억울한 판결을 받다

[밍후이왕 2014년 7월 31일]길림성 연길시 파룬궁수련생 자창즈(贾长芝)는 금년에 80여세 고령이다. 2012년경에 길림성 녀자감옥에 납치되었는데 근일에야 자창즈가 이미 3년 억울한 판결을 받고 불법으로 감옥에 감금되어 박해를 받고 있으며, 2015년 1월에야 기한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몇 년 전 70여세인 자창즈는 여러 차례 납치되었으며, 혹형에 시달렸다.

자창즈의 집은 길림성 연길시 조양천진에 있다. 파룬궁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중공에 납치되어 혹형을 받았다. 2011년 9월, 당시 이미 77세인 자창즈는 집에서 2명의 사복경찰에 끌려 연길시 구조점 세뇌반에 납치된 후 10월경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2008년 5월 10일경, 당시 74세 고령인 자창즈는 3도지구에서 파룬따파 진상을 알리다가 악인에게 고발당해 불법경찰이 신분증을 검사한다는 명의로 조양천진 파출소에 납치해 갔다가 북대 간수소에 전의되어 박해를 받았고, 집을 수색 당했다.

2005년 4월말, 자창즈가 지인의 집에 갔을 때 룡정시 안민파출소의 악경에게 납치되었는데 당시 노인은 몸에 파룬궁 진상자료를 간직하고 있었다. 노인한테서 진상자료 출처를 알아내기 위해 안민파출소 악경들은 노인에게 10시간 넘게 혹형을 가했다. 3명의 악경은 발로 노인의 무릎 관절을 세차게



혹형연시: 폭력

찔고, 노인을 강박하여 하나의 악하고 긴 몽둥이 우에 무릎을 꿇게 해 가혹한 고통을 주었다. 후에는 또 노인을 달아매 놓고, 5명의 악경이 룬번으로 물이 담긴 생수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찼다.

혹형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과정에 악경 장나이장은 “네가 이렇게 많은 나이에 진짜 메스껍다. 너마장사 몇을 불러 강간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10시간 넘는 혹형으로 자창즈 노인의 전신은 검푸르게 멍이 들었고, 두발은 완전히 검은 색으로 변했다.

악경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튿날 오후, 자창즈 노인의 발에 가장 큰 족쇄를 채우고 (적어도 안민 파출소에서는 이러하다) 두 손을 철창란간에 발끝이 약간 땅에 대일 정도로 달아 매고는 고정해 놓았다. 한 보통 키에 얼굴이 방형이고 피부가 검은

악경은 외상 흔적을 내지 않으려고 물이 가득 찬 생수병으로 노인의 정수리를 내리쳤는데 그때마다 자창즈 노인의 눈에선 불꽃이 튀었다.

당시 중공 불법요원은 또 자창즈 노인의 3천여 원 현금과 저축통장을 빼앗았다.

2005년 12월, 자창즈 노인은 비밀리에 심판을 받고 4년 불법 형을 받았다. 노인은 박해로 신체가 엄청난 손상을 받아 심각한 병적 증상이 나타나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길림 파룬궁수련생 리기옥 녀사가 억울하게 세상 떠다

길림성 연길시 파룬궁수련생 리기옥 녀사는 여러 번 중공당국의 박해를 받았다. 여러 차례 납치당하고, 혹형으로 자백을 강요당했는데 2014년 7월 21일, 68세에 한을 품은 채 억울하게 세상을 떠다.

길림성 연변 룡정시 3명의 파룬궁수련생이 납치 되다

2014년 7월에 길림성 연변 룡정시 3명의 파룬궁수련생이 진상 알리던 중 납치 됐다. 그 중 한 녀사는 이튿날에 친인이 와서 집으로 데려갔다.